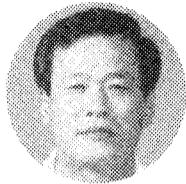


사람 사람들

충북도지부회의
‘회비 10% 공제’ 없애자

■이지대
충북도지
부장은 지
난 1월31
일 오후 5
시 수안보
온천에서 1

박2일 일정으로 정기지부회의를 개최. 충북도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시행돼 오고 있는 ‘도지부 운영금을 위한 회비 10%공제’ 규정을 없애고 회비수납도 중앙본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는 안을 건의하는 한편 ‘농민의 자유로운 판로를 허용한다’는 한약관리규정 개정안 내용이 각 군단위 보건소까지 공문으



로 하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본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본부에서 남정학 전무가 참석 최근 발표된 규격화 관리 규정 개정안 내용과 앞으로의 생약협회 사업계획과 현안에 관해 설명.

백화점 한약재코너 개설



■조광호
사무소장
(강원도 정
선군)은 2
월2일부터
잠실 롯데
백화점 본
점 지하 식품부에서 한약재 코너
를 맡아 강원도산 약초를 판매한
다.

■조광호
사무소장
(강원도 정
선군)

2월2일부터
잠실 롯데
백화점 본
점 지하 식품부에서 한약재 코너
를 맡아 강원도산 약초를 판매한
다.

전국도지부장회의

생약협회는 지난 1월 13일 협회회의실에서 전국도지부장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 요지는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평가와 결산을 위한 것. 각도 지부장들은 이번 제4회 전시회가 예년과 다르게 성황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논의. 한편 생약협회는 제4회 전시회 손해액지원 차원에서 각 도지부별로 5백만원씩을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그중 2백만원은 지원이고 3백은 다음 행사개최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융자해 준 것이다.

이사회 개최

생약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협회회의실에서 97년 분기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8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신년간담회

임연학회장
최용규 원특국장과



상설전시관 건립지원 건의

임연학회장은 지난 1월 22일 농림부원예특작국 최용규 국장과 신년 간담회를 겸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가진 회동에서 임회장은 국내 생약농업의 구체적 현실과 생약업계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최국장과 의견을 나눴다.

임회장은 특히 무분별하게 수입돼오고 있는 엑기스와 식품용 한약재가 생산농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설

명하고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것을 호소했다. 한편 협회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국산한약재 상설전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전시관 건립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안에 대해 최용규 원특국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 검토를 약속했다.

인사

「免」

△고창순 강원도 영월군 사무소장 △심재석 전북 임실군 공판장장 △심철수 충북 충주시 동부사무소장 △정임선 대구 남구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인욱 경기도 연천군 공판장장(사장) 이상 1997년 12월 31일부

내방

△황인구 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허성무 부회장 △이옥용 이사 △임경학 이사 △김성배 경기 지부장 △이지대 충북 지부장 △장영철 이사 △임완수 강원 지부장 △이승엽 전북 지부장 △조광호 강원 정선군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갑구 사무소장

“도매기능 생약 공판장 만들자”



이승엽(전북도지부장)

“
경매입찰 통해
유통비용
최소화 할수도
”

『각 도지부가 주식형태로 얼마간 출자해서 한약재 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약공판장을 만들자』

지난달 20일 열린 전북도지부회의에서는 IMF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 일환으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지부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회 매장(국산한약재상설매장)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기능으로서 도매 기능을 할수있는 생약공판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승엽지부장은 『생산자단체이니 만큼 생산농민들로부터 직접 수매해서 제약회사나 기타 대량 소비단체와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매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약공판장 설립이 절실히 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부장은 『이처럼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생약공판장이 설립되면 생산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약재를 위탁판매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

여해 정기적으로 공매입찰을 통해 공정한 시세를 형성해 나감으로서 유통비용의 거품을 줄일수 있어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고 또 생약협회는 생산자 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지부는 이외에도 우수한 품질의 국산 약재를 이용해 다양한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범국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모으기 행사에도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 회원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심있는 모든분

혜택

-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 2) 생약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 할인
- 4) 생약분야 정보제공
- 5)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 4) 회비 : • 개인 :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02) 967-8133